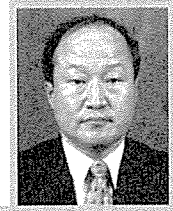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주)연합정보기술/대표이사 조봉구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은 노자의 도덕경이 시작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의 해석을 놓고 장안이 떠들썩하다. 항상 그러듯이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금방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고 옆치락뒤치락 하면서 패라다임이 변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화제의 주인공은 도올이다. 그가 우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TV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이다. 고려대 교수 자리를 박차고 원강대 한의학과에 입학하던 기인한(?) 일이 신문에 보도될 때 도올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주목 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그가 다시금 우리 눈을 휘둥글게 만들었다. 어영구영 세월을 보낸 사람도 많고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답시고 허송세월만 보낸 사람도 있고 무언가 나름대로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도올은 큰 일을 저지른 것이다.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일은 그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섭렵했는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TV에서 열을 받아가며 그 특유의 제스처를 해가면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김수환 추기경과의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한껏 높혀도 보면서 과히 불세출의 인물이구나 하고 우리의 혀를 내 두르게 한다.

노자강의를 하면서 대부분의 청취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말로 한문을 읽어 가기도 하고 어려운 철학적 용어를 영어로 칠판에 휘갈길 때면 도대체 저 도올의 작은 머리 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 있을까 부럽기도 한 느낌이다.

그런 그가 한방 맞았다. 소위 anti-도올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도올이 떠드는 소리가 하도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같아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다면서 붓을 든 여인이 있다. 정면으로 도전장을 보낸 것이다.

도올이 노자의 도덕경 전도사로 열심히 방송을 타고 있는데 반하여 노자를 웃긴 남자라는 제목의 책이 또 한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가 말하는 노자를 웃긴 남자는 물어 볼 것도 없이 도올을 지칭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우성일까 하는 생각에 책방에 들어 갔다. 이 책을 찾는다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시간 화제 코너에 눈에 번쩍 띄게 전시해 놓았을 뿐 아니라 많이 팔릴 자신이 있다는 듯이 수북이 쌓아 놓은 모양새는 한번 사고픈 마음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1,2권 나왔는데 1권 값만 9,800원. 좀 비싸다. 도올 강의는 공짜로 듣는데 anti-도올을 위해 일금 만원을 들여야 하나, 잠시 망설이면서 첫 장을 펼쳤다.

도올은 전 국민 앞에서 삼류 개그쇼를 하고 있다는 첫 줄부터가 부담이 전혀 없다. 우선 1권만 계산을 했다. 서점에 가면 늘 하던 버릇대로 다른 책을 두 권 더 샀다. 한번 가기 힘든 책방인데 들른 김에 3,4권을 한꺼번에 사는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알듯 모를 듯 한 말이다. 학창시절에 이에 대한 해설을 들어 보았지만 가물가물. 도올은 이를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 지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풀이해 왔던 방식과 다름이 없지만 택도 없는 오역이라는 주장이다.

그녀는 이것을 도를 도라고 불러도 좋지만 꼭 도라고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이름으로 이름을 삼을 수는 있지만 꼭 그 이름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뜻이라고 풀이 한다.

나는 여기서 어떤 풀이가 옳고 어떤 풀이는 그르다는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실력도 없고 또 한편으로 잘못 싸움판에 달려 들었다가 불필요한 말장난 같은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다. 단지 세상 사람 누구나 가 좋아한다는 싸움구경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부쟁불패(不爭不敗)라는 말로 이 책은 끝맺음을 하고 있다. 나에게 꼭 맞는 말이다. 싸우지 않으면 질 일도 없다. 도올이나 anti-도올이나 싸움 속에 끼어들지 말고 웃으며 살아가자.

그러나 한가지 꼭 잡고 넘어갈 일이 있다. 그것은 한문 교육이다. 한글전용 주장 때문에 우리네 교육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내 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영어시대가 지나면 한문시대가 온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한문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 이들이 사라지기 전에 한문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 우리의 앞날을 한맹(한문문맹)세대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본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 토대 위에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야 하는데 한문 없이 한글만 가지고 어떻게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겠는가.

어느 대학 교수는 강의시간에 출석을 부르는 대신에 출석한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문으로 적어 내게 한다고 한다. 그러면 남의 이름을 한문으로 적을 수 없는 학생들

이 대리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우습기도 하고 한심한 현상이다. 더 한탄스러운 일은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그리지도 못하는 학생도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것일까.

도로 표지판에도 한문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직도 신문의 제목에는 한문을 써서 강조점을 눈에 잘 띄게 하고 있다.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한문 안 쓰는 것을 도라고 하지 말고 한문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다운 도가 아닌가 한다.